

대행 스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남) (독일어로 말함)

혜진 스님(통역) 스님, 저는 오스트리아 비인,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질문할 테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자5(남) (혜진 스님 통역) 약 2, 3년 넘게 선(禪)을 공부해 왔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가 누구인지 2, 3년간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찾아 오면서 두 번이나 스승을 바꾸었고, 3개월 정도 화계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의문이 내면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숭산 행원 스님이 이 공부를 하면 자신을,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면의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지를 요즘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스님.

큰스님 그런데 숭산 스님 얘기는 또 뭐야?

혜진 스님 화계사에서 여름철을 났답니다, 3개월을. 그리고 내일 비엔나로 돌아가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서 오늘 한마음선원 큰스님 법문이 있다고 그래서 왔답니다.

질문자5(남) (혜진 스님 통역) 스님! 제가 내적 자아, 저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큰스님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거든,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는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업식, 그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자아를 진짜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고…,

혜진 스님 거기까지만요, 스님.

큰스님 허허허….

혜진 스님 (통역한 후) 잘 알아듣습니다, 스님.

큰스님 허허허. 그러니까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너만이 참나가 있는 거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어.' 하고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이야, 밑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시뻘겋게 물이 들어 있는 병에다가, 저 뭐야? 퐁퐁을 조금 넣어서 씻어 가지고서는 맑은 물을 거기다가 받았어. 받으니깐 그 거품이나 뭐나 그냥 쫙 위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나쁜 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채워지더라고. 연방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흘러 내려오더라고. 그거와 같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에 되맡겨라 이거야. 내 말은 끝났네, 이제. (대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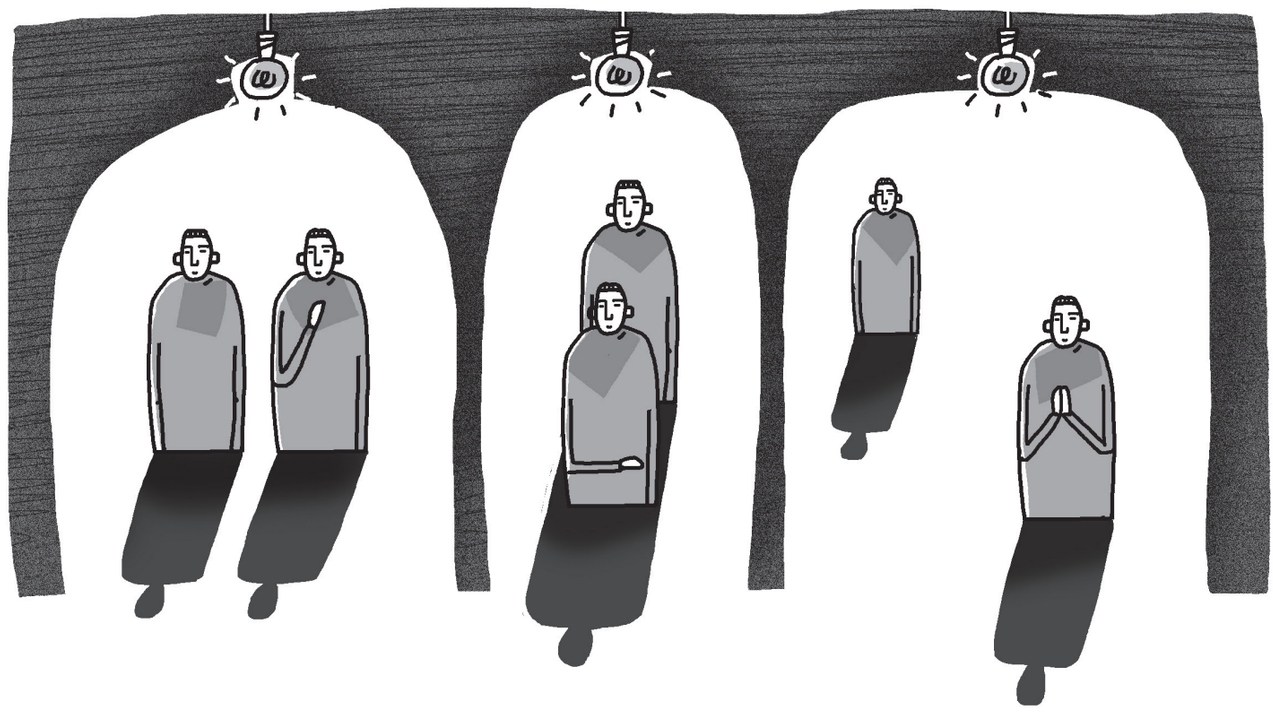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혜진 스님 (통역한 후) 예, 스님.

큰스님 내 말이 끝났다고, 하하하.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조그만 책도 주고, 잘 알아서 좀 리드해 줘, 답답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금방 누가 뭐, 하혈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그만큼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방방 뛰죠. 배 안에 탄 중생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듯이 말이야. 그건 꼭 뒤집히고 만다구.

질문자5(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6(여)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제게는요, 오빠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오빠가 2주일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간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오빠를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의 권유로 해서 오늘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빠의 수술이 잘되기를 바라고 스님의 힘을 빌려서 오빠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스님 댁은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자6(여) 마산지원 스님 법문은 두 번 들었고 절에 다니기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큰스님 그 전에 절에 다닌 거 말고.

질문자6(여) 한마음 공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스님 이번에 처음 왔다고요?

질문자6(여) 두 번째입니다.

큰스님 두 번? 미약한데, 두 번을 들었으면. 하여튼 한 번을 들었든 두 번을 들었든 절실하게 듣는다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나무와 나무가 서로,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사랑을 하죠. 붙들고 매달리지 않아도 사랑을 하죠. 그거와 같이 그렇게 통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물질세계만 믿느냐, 정신세계 자기의 근본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질문자6(여) 그러면 제가요, 오빠에게 해야 될 말이나 어떻게 뭐….

큰스님 그거밖에 없어요.

질문자6(여) 마음으로?

큰스님 진짜로 믿어서 관하고, 관하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게끔 그 능력을 기르고 발전을 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질문자6(여) 네, 스님. 앞으로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큰스님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도 하게 만들고요.

질문자7(남) 춘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직장일 등으로 큰스님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큰스님 비디오하고 한마음 회보를 수시로 보고 큰스님께 말씀 들은 거를 한량없이 받아가서, 그걸 심봉 삼아 주인공에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한 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법이 뜬구름과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큰스님 죽비 소리에 '닦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가서 주인공한테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심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할 때 했었는데, 정근을 해 나가다가 불현듯 큰스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홀연히 대자유인임이 느껴지면서 '열반의 경지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중생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때 제 눈에 저도 중생이면서 중생들 삶을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전부 다가 처처 부처님이신데, 단지 자기 본래면목이, 여래장이 여래장임을 모르고 오색무지개를 떠다가 집안에 갖다 둘러놓은 그 일

☞ 18면으로 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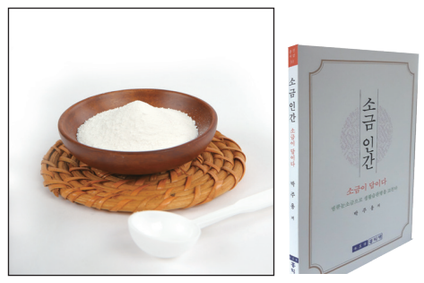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